

<b>민 지 실</b>	<b>음 혜 천</b>	<h1>BUDDHANARA</h1>	<b>FAITH WISDOM ACTION</b>
----------------------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 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 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 시 전법 기도 법회, 교리 탐구

넷째주 일요일 11 시 추석 기도 법회, 송편 만들기

다섯째주 일요일 특별 법회 (야외 피크닉)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 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무명이니,  
 중생들이여!  
 이 무명을 벗고  
 청정하게 되어라.

But the greatest of all sins indeed the sin of ignorance. Throw this sin away, O man, and become pure from sin.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 대한 불교 조계종 종정법전 예하 하안거 해제범어

“금으로는 금을 바꾸지 못한다”

법안문익(法眼文益)선사에게 각(覺) 상좌(上座)가 찾아왔습니다.

“배로 왔는가? 걸어왔는가?” “배로 왔습니다.”

“배는 어디에 있는가?” “배는 강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물러가자 선사께서 곁에 있던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각 상좌가 제대로 안목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 네가 말해보거라.”

오늘은 하안거 한철 살림살이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해제 날입니다. 이제 모두가 만행 길을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산길을 걸어서 선지식을 참방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화두의 주인공인 법안문익 선사는 장경혜릉(長慶慧稜) 문하에서 공부했으며 나한계침(羅漢桂琛) 선사의 법을 이어받았습니다. 장경혜릉과 나한계침은 모두 설봉의존 선사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법안 역시 설봉가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그냥 해제가 아닙니다. 결제동안 공부했던 것을 해제 때는 제방의 선지식과 도반들을 두루 참방하면서 자기공부를 더욱 탁마하는 기간입니다. 명칭하게 다닌다면 가는 곳마다 곳곳에 있는 생치기에 걸려 자빠질 일 뿐입니다. 걸어왔는지 배를 타고 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낙처(落處)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몽둥이 삼십 방 아니면 귀가 떨어질 만큼 꾸중하는 고탐소리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선지식의 물음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하는 방법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질문 한마디 한마디가 공부 길을 묻는 것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선지식은 속복의 거사차림일 수도 있고 재가보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본분자리에서 보면 배로 왔는지 걸어왔는지 그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적인 질문마저도 어떻게 보면 묻는 자의 분별의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려드는 남자는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선지식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방편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방편이 방편인줄 모르고, 또 묻는 낙처를 제대로 모르면 선문답은 그야말로 우문우답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문은 현문이 됩니다. 또 우답은 현답이 됩니다. 우문우답을 현문현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제대로 된 공부인이라고 하겠습니까.

水不洗水

金不易金

물로는 물을 씻지 못하고

금으로는 금을 바꾸지 못한다.

불기 2551(2007) 하안거 해제일에

도림법전 조계종 종정

중단 소식:

## 총무원 공익재단 설립 추진

### 재난구호 등 사회 활동 지원

조계종이 재난구호, 복지, 통일, 환경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불교의 대사회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지난 8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중무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불교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종단차원에서 공익법인 설립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재난구호, 소외계층 지원, 대북지원 등 불교계 사회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공식 모금창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 각

교구본사 분담금에 의존한 중단예산으로 불교계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총무원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공익재단은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아름다운재단,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의 단체를 모델삼아 모금과 불교계 안팎 사회단체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주요

활동분야로는 △국내외의 재난구호, 기아예방, 아동보호 등 구호를 비롯해 △소외계층, 여성 및 노인 후원사업, 어린이 및 청소년 지원사업 등 복지 △대북지원, 북한 문화재 보호, 북한 의료 및 교육지원 등 통일 △숲 가꾸기, 백두대간 및 국립공원 보전 등 환경 △국제개발교류 및 협력, 해외교육의료시설 건립, 문화교류 등 국제 등 5개 분야다.

9월의 경전 공부:

### 금강경

“일체 번뇌 없애는 진리의 말씀”, 집착 끊고 공을 통한 지혜 체득 강조, 가장 널리 알려져... 조계종 소의경전

<금강경(金剛經)>은 부처님의 일대소설 중 반야부에 속해 있는 경으로 600부 가운데 577권 제에 해당하는 경이다. <금강반야바라밀다경>을 약칭하여 <금강경> 혹은 <반야경>이라 부르는데 범어의 원명은 ‘Vajracchedika-pramita-sutra’로 금강과 같이 견고하여 능히 일체 번뇌를 끊어 없애는 진리의 말씀이란 뜻이다.

한역에 6가지 역본이 있으나 구마라습이 번역한 본이 널리 유통되어 왔다. 불립문자를 표방하는 선가에서도 중요시 해온 경일뿐만 아니라, 우리 종단 조계종에서 중현으로 명시해 놓은 소의경전이기도 하다. 불경 가운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경이기도 하다. ‘Diamond-sutra’라고 영역되어 서양에 일찍 소개되어 읽히고 있는 경이다.

이 경의 중심사상을 흔히 공사상(空思想)이라 하는데 그릇된 집착을 부수고 공을 통한 지혜 곧 반야를 체득하고자 하는 것이 이 경의 대의이다.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본다.”(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라는 4구계에 천명된 부처님의 말씀은 이 경의 대의를 요약하고 있다.

경의 내용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공의 이치를 가장 잘 터득하고 있었다는 수보리와 부처님이 문답식의 대화를 전개해 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어느 날 성안에 들어가 탁발을 하고 돌아와 밥을 먹고 밥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았을 때 수보리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질문을 한다.

“선남자 선여인이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발했을 적에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해야 하나이까?” 이 질문을 실마리로 해서 전문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을 요약하여 말한다면 일체중생을 제도하여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하되 한 중생도 제도한 중생이 없어야 한다 하였다. 경 본문의 이 대목을 4심으로 설명하는데 일체 중생 전부인 9류 중생을 제도대상으로 삼는 것을 광대심이라 하고 무여열반 곧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제일심이라 하며,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한 중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항심(恒心),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의 사상(四相)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부전도심(不顛倒心)이라 한다. 보리심을 발한 사람은 이 네 가지 마음에 머물러 보시 등 6 바라밀을 실천하되 어디에도 집착을 두는 관념적인 고집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선종에서 5조 홍인 스님과 6조 혜능스님 대에 와서 <금강경>을 중시한 이래 이 경을 선리적(禪理的)으로 해석한 많은 주소들이 나왔다. 이른바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서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6조 혜능스님은 “<금강경>은 무상(無相)으로 중(宗)을 삼고 무주(無住)로 체(體)를 삼고 묘유(妙有)로 용(用)을 삼는다”고 했듯이 일체 모두 공한 진공(眞空)과 그 공속에서 찾아내는 묘유(妙有), 이 진공묘유의 도리가 <금강경>의 핵심이다. 일체의 관념적인 상에 붙들려서는 안 된다.

부처님은 “수보리아, 만약에 보살이 자아에 대한 관념적인 고집, 인간에 대한 관념적인 고집, 중생에 대한 관념적인 고집, 구명에 대한 관념적인 고집을 가지면 보살이 아니다” 하였고 혜능스님은 “중생의 불성은 그 근본에 있어서 부처와 다름이 없지만 사상(四相)을 가짐에 따라 무여열반에 들지 못한다. 사상을 가지면 중생이요 사상을 가지지 않으면 부처다”라고 하였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

교리 탐구:

##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 길, 팔정도(2)

- “선법 가운데 부지런함이 최상” -

사성제와 연기법을 터득함으로써 정견을 확립하여 지혜로워진 사람은 정정진(正精進: Samma-vayama), 즉 올바른 노력을 한다. 깨어 있는 한 우리는 생각으로건 몸으로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가운데서 올바른 노력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것(不善法)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로운 것(善法)들을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유익한 것들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아 애쓰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로운 법은 무엇이고 이로운 법은 무엇인가. 해로운 법이란 자신이나 남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여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고, 이로운 법이란 자신과 남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초래하여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이기심으로 자신과 남 모두를 해치게 하는 모든 노력과 이타심으로 자신과 남 모두를 이롭게 하는 노력이다. 정견이 생겨 지혜로운 자는 나와 남 모두에게 이로운 것을 위해 꾸준히 힘쓰며,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용기를 갖는다.

춘다여,”비구들이여, 밤하늘에는 온갖 별들이 빛난다. 그러나 그것들은 달빛의 16분의 1 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기에 달빛은 밤하늘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진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게으르지 않음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기에 온갖 선법(善法) 가운데 부지런함이 최상이 되느니라.” <상응부경전>

뿐만 아니라 붓다가 이 세상에서 남긴 최후의 말씀 역시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당부였다. 열반이라는 완전한 행복은 이타심으로써 부지런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행복의 경지다. 정견이 생겨 지혜로운 자는 선법을 향해 결코 게으르지 않다. 붓다는 29 살까지 그 누구에게도 견줄 수 없는 극단적 쾌락의 삶을 살았다. 그 후 다시 35 살 까지 6년 동안은 또한 그 누구도 흉내조차 내기 힘든 고행의 생활을 했다. 그러나 이 두 삶의 방식 어느 것도 그를 완전한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완전한 행복의 성취를 위해 붓다가 새롭게 선택한 길이 바로 중도의 실천이며 그 중도의 구체적 내용이 다름 아닌 바로 팔정도이다.

“비구들이여, 출가자는 두 가지 극단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하나는 모든 욕망에 따라 쾌락에

탐닉하는 것으로, 열악하고 야비하며 ... 천하고 이익이 없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을 피로케 하는 것에 탐닉하는 것으로, 피롭고 천하며 이익 됨이 없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여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眼)되고 지혜가 되어 ... 열반(涅槃)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 완전한 행복(涅槃)으로 이끄는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성스러운 여덟 가지 길(八正道)을 말하는 것이니, 바로 정견(正見), ... 정정(正定)이다.” <전법륜경>

붓다가 쾌락과 고행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선택한 중도의 길, 팔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이며 그 다음이 정념이다. 붓다는 정견으로 정념을 실천하여 완전한 행복에 도달 한 것이다.

“연기 사성제 대한 정견 가져야 무명 소멸”-

사성제와 연기법을 터득함으로써 정견을 확립하여 지혜로워진 사람은 정념(正念, Samma-sati), 즉 올바르게 마음을 챙긴다. 사띠는 ‘마음챙김’ 혹은 ‘알아차림’ 또는 ‘주의집중’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로서,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 여덟 가지 실천 중 정견 다음으로 지극히 중요한 항목이다.

중국으로 건너 온 불교는 중국의 문화를 만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 된다. 정신집중의 수행 역시 엄청난 변모를 겪는데, 완전히 중국화된 선 수행법이 바로 간화선(看話禪)이다. 간화선의 요체는 ‘선 수행에 관한 짤막한 에피소드(話) 하나에만 오로지 정신을 집중(看)’하는 수행법이다. 반면에 중국적으로 변모되기 이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수행은 간화선과 몹시 다르다. 무엇보다도 첫째 정신집중의 대상이 현저하게 달랐다. 간화선이 ‘에피소드(話頭)’ 하나에만 집중하는 데 비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선 수행은 집중하는 대상이 여럿이다.

그 대상을 네 가지 범주로 간추리면, ① 신체와 그 현상(身, kaya), ② 감각적 정서적 느낌(受, vedana), ③ 마음의 활동들(心, citta), ④ 일체의 개념 및 사물과 현상(法, dhamma) 등 네 가지가 된다.

사성제와 연기법을 터득함으로써 정견을 확립하여 지혜로워진 사람은 이 네 범주의 대상(四念處)에 주의를 기울여 정신을 집중한다. 즉, 그 네 부류의 대상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고, 마음에 챙겨 두는 것이다. 사띠, 즉 알아차림의 수행에서 가장 우선되는 중요 사실은 어떠한 가치판단이나 분별을 멈추고 그저 지그시 주시(注視)할 뿐이라는 점이다. 집중의 대상을 그대로 주시함(念)으로써 그 상태와 성격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자(觀) 할 뿐이다.

알아차림의 첫 번째 부류인 신체와 그 현상(身, kaya) 중에서 가장 자주 채택되는 대상은 호흡이다. 호흡에 관한 알아차림의 훈련, 즉 수식관(數息觀, anapanasati)은 초기불교의 수행자들이 자주 채택한 수행이다.

둘째 감각적 정서적 느낌(受, vedana)에 대한 알아차림은 기쁘거나 불쾌하거나 혹은 이 둘에 속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감각과 정서 등, 온갖 감각과 정서가 자신에게서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셋째 마음의 활동들(心, citta)에 관한 알아차림이란 자신의 마음이 음탕한가 아닌가, 증오하는가 아닌가, 산란하는가 집중하는가 등 마음의 온갖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넷째, 일체의 개념 및 사물과 현상(法, dhamma)들에 관한 알아차림 역시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를 지그시 바라보아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정견이 분명하게 선 사람은 이 올바른 마음챙김, 알아차림의 수행을 계속한다. 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수행이 우리의 완전한 행복과 무슨 관련이 있는냐는 점이다. 우선 올바른 마음챙김의 수행은 정견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 사념처에 대한 마음챙김은 우리들로 하여금 연기법과 사성제의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터득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마음챙김의 수행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인 탐착(貪着)을 사라지게 하고 생겨나지 않게 한다. 연기법과 사성제에 대한 정견이 확실해진다는 것은 무명(無明)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무명이 사라지면 탐착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탐착의 원인이 무명이기 때문이다. 무명이 사라지면 탐착이 사라지고 탐착이 사라지면 고통이 사라지니, 팔정도야말로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 올바른 길임에 틀림없다.

-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집중’을 실천” -

정념(正念), 즉 올바르게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리는 수행은 다른 곳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는 깨달음으로 가는 직접적 길이며 이 보다 더 중요한 실천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성제와 연기법을 터득함으로써 정견을 확립하여 지혜로워진 사람은 정정(正定), 즉 올바른 삼매 즉 올바른 집중을 실천한다. 초기불교의 실천을 집대성한 <정정도론>에서는 이를 실천하고 성취하는 방법을 40 가지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올바른 집중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관능적 욕구, 악의, 무기력, 근심, 불안 및 회의적 의심 등을 버림으로써 즐거움과 행복의 감정을 유지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체의 지적인 활동을 그침으로써 ‘마음의 평정한 집중(心一境性)’을 유지한다. 즐거움과 행복의 감정 역시 그대로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활동적 감각과 즐거움의 느낌을 그침으로써, 행복감이 마음의 평정한 집중과 더불어 남는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슬픔 등 모든 감정을 그침으로써 오로지 순수한 평정과 깨달음만 남는다. 올바른 집중이란 한 곳에 온전하게 몰입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지속하는 실천을 의미한다.

한편, 올바른 집중의 의의는 이것이 불교적 실천의 핵심, 즉 바르게 보기의 힘이 된다는 점이며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올바른 집중의 연장선 그 끝에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깨달음 이후 첫 제자들에게 베푼 첫 설법이 팔정도였고, 입멸직전 마지막 제자 수밧다(Subhadda)에게 설한 내용도 팔정도이다. 붓다는 이 팔정도만이 우리를 온전한 행복으로 인도한다고 하신다. 어떠한 중요한 길이 있어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여 ... 출가 수행자의 목적을 이루게 되었는가? 이른바 여덟 가지 올바른 길이 그것이다. 여덟 가지 바른 길이란, 바르게 보기, 마음 가지기, 말하기, 행동하기, 생활하기, 노력하기, 마음 챙기기, 집중하기이니, 이것이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나는 이것으로써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여 ... 출가 수행자의 목적을 이루어 완전한 행복(涅槃)에 이르렀느니라.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

이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상적 가르침의 요점이 연기법에 있다면 실천적 가르침의 요점은 팔정도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붓다의 제자이고자 한다면 팔정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간직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수다. 불자는 팔정도를 실천 수행함으로써 일체 고통의 원인인 탐진치 삼독(三毒)을 극복하고 완전한 행복인 열반을 성취한다.

한편, 팔정도의 실천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세계의 행복과도 무관하지 않다. 팔정도 중에서 바른 말.바른 행동.바른 생활은 ‘윤리적 실천(戒)’에 속하고, 바른 노력.바른 마음챙김.바른 집중은 ‘마음집중의 실천(定)’에 속하며, 바른 견해.바른 생각은 통찰의 실천(慧)에 속한다. 이 가운데서 윤리적 실천은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타자의 행복, 즉 세상의 행복을 지향한다. 따라서 팔정도는 나와 남이 함께 행복으로 가는 완전한 길인 것이다.

## 불법을 만난 행운의 크기

부처님이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설법을 해도 들을 수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수행도 못함으로써 열반에 들지 못하는 여덟 종류의 박복한 중생에 대해 말씀했다.

“첫째는 지옥(地獄)에 태어난 중생이다. 그들은 여래가 세상에 나와서 설법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리하여 도를 닦지도 못하고 열반에 이르지도 못한다. 둘째는 축생(畜生)에 태어난 중생이다. 그들은 여래가 세상에 나와서 설법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리하여 도를 닦지도 못하고 열반에 이르지도 못한다. 셋째는 아귀(餓鬼)에 태어난 중생이다. 그들은 여래가 세상에 나와서 설법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리하여 도를 닦지도 못하고 열반에 이르지도 못한다. 넷째는 장수천(長壽天)에 태어난 중생이다. 그들은 여래가 세상에 나와서 설법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다섯째는 변방에 태어난 중생이다. 그들은 여래가 세상에 나와서 설법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리하여 도를 닦기는커녕 성현을 비방하고 온갖 삿된 일을 짓는다. 여섯째는 중앙국에 태어났어도 여섯 가지 감관이 완전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중생들이다. 그리하여 설법을 듣지도 않고 도를 닦지도 못하고 열반에 이르지도 못한다. 일곱째는 중앙국에 태어나고 여섯 가지 감관을 완전하게 갖추었지만 삿된 소견을 갖는 사람이다. 그는 ‘보시의 공덕도 없고 받는 이도 없으며 선악의 값음도 없고 금생 후생도 없다. 사문이나 바라문이 어떤 경지에 오른다는 것도 다 쓸데없는 말이다’라고 주장하며 도를 닦지 않는다. 그리하여 설법을 듣지도 않고 열반에 이르지도 못한다. 여덟째는 중앙국에 태어나고 여섯 가지 감관을 완전하게 갖추었으며 총명하며 재주도 있고 설법을 들으면 바로 이해하고 바른 소견을 갖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는 게을러서 여래의 설법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도를 닦지도 않고 열반에 이르지도 못한다. 그러나 수행자들이여, 어떤 사람은 중앙국에 태어나서 지혜와 변재와 총명이 있는데다가 여래의 설법을 듣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바른 소견을 닦으며 선악을 잘 분별하며 범행을 닦는다. 그리하여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여래의 설법을 듣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믿으며 부지런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중일아함> 36 권 팔난품(八難品) 제1 경

### 불법 만나 인생의 바른길 알고

정법에 의지한 세계관 갖게 돼

가난하고 출세 못했어도 ‘축복’

정견으로 정념 실천하면 ‘행복’

생각해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 한 가지 있다. 우리는 비록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나라에 태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육근이 청정하여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 무엇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인생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더욱이 불교를 믿는다면 샅된 길로 가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다행하게도 정법에 의지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다. 탐진치(貪瞋癡) 삼독에 꼬달려 살아가다보면 가는 길이 편하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이나마 비켜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가졌다면 이 또한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비록 가난하지만, 출세는 많이 못했다 해도 이것처럼 거룩한 청복(淸福)은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다점생래로 지어온 선근공덕의 결과일 것이다.

모름지기 정법을 만나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저 아귀나 수라보다 못한 중생들처럼 못된 짓에 발 담그지 말아야 한다. 바르게 닦아 금생에 열반을 이루도록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복 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

## 법회소식 NEWS

- 9월 넷째주에는 한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한가위)이 있는 주간입니다. 추석은 양력 9월 25일 화요일(음력 8월 15일)이지만 불국사(Buddhanara Temple)에서는 9월 넷째주 일요일 11시에 추석 기도 및 “송편 만들어 보기”등이 있겠습니다. 신도님들의 많은 법회 동참을 바랍니다.
- 9월 다섯째주 일요일은 특별 법회인 피크닉을 겸한 야외법회가 있겠습니다. 현재 장소와 시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자세한 일정은 법회 시간을 통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양력 8월 27일(음력 7월 15일)은 백중(우란분절)이었습니다. 불국사에서 양력 8월 26일 우란분절 기도 및 영가 천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날 선망부모, 일가친척, 수자령 영가님등 인연있는 62위 영가님들을 모시고 천도기도를 성화리에 마쳤습니다. 모든 영가님들의 모두 극락왕생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미국에서 동참하신 영가 기도 동참금은 \$1000 불과 백중 상차림 공양비 \$90 불이고 꽃값 및 과일값등 상차림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280.80 불입니다. 이중 미국에서 부담하는 50%인 \$140.40 불을 동참비와 백중 상차림 공양비를 합한 \$1090 불에서 제한 총 금액은 \$949.60 불입니다. \$949.60은 노인 잔치등 노인 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신도님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 기다립니다. 백중 제사 준비를 위해 신도님 모두가 정성으로 마련해 주신 제사 음식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영가 기도 동참하신 동참금은 한국 현지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쓰여 집니다.
- 책 읽기에 좋은 “독서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불국사(Buddhanara Temple)에서는 작지만 알뜰한 도서관을 신도님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도님들은 이번 가을에는 적어도 한달에 한 권이상의 불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단 책을 대출 받으시기 위해서는 불국사에 신도 카드가 있으신 신도님 가정에 한해 대출해 드리고 있고 한 권 당 대출료는 \$1.00 불입니다. 소장된 모든 책들은 불국사의 재산입니다. 대출 받은 책은 깨끗하게 보시고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77번 기사생 안영주, 178번 병오생 허지원, 179번 정해생 신선우.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이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 8월 한 평 불사 동참자: 무인생 김순옥
- WAVE Q 정수기 시주 (자연미네랄 알칼리 환원수): 무량화 문 봉순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